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신문사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2월 10일 금요일 (음 1월 14일) 제174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전북도, 재정혁신 3관왕 달성

전북도가 최근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6년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재정건전성 관리, 투자재원 확충, 지출효율성 제고 등 지방재정혁신 3대 분야에서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했다.

전북도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채무 1,780억원을 조기 상환해 지난해 말도 외부채무 제로화를 달성했다.

외부채무 제로화는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외부 채무가 없는 자치단체가 됐고, 332억원의 이자부담을 절감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런 전북도의 채무 제로화는 "지역 발전을 선도할 미래 대형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송하진 지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실제, 이번

채무 1780억 조기 상환·보통교부세 전국 최고 증가

행자부 '2016 재정집행' 평가 전국 최우수상 수상

외부채무 제로화로 삼각농장, 토탈관 광,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 사업과 미래의 대형 지역개발사업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올 초 각 시·도에 통보한 2017년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전북도는 전년(6,820억원) 대비 13.7%가 증가한 7,757억원을 확보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에서 자금의 용도를 정하지 않고 교부하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가 재원 확보를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전북도의 증가율 13.7%는 시·도 평균증가율 3.3%를 4배 이상 상

회하는 수준으로 전국 광역도 중 최고 증가율을 기록해 다른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산 바 있다.

전북도는 보통교부세 재원 확충을 위해 행사·축제성 경비,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등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노력을 해 이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확보했으며, 전문가 초청 실무교육, 도와 시군 공무원 워크숍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 역량을 강화해 왔다.

아울러,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6재정집행' 평가에서 전북도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지방재정 혁신 3대 분야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완성했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가 그동안 지방재정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연말 예산집행 몰림현상을 방지하고 이월, 불용예산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역점 추진한 과제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단계

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적 재정운영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재정운용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되고 있어 수상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민선6기 출범 후 추진해온 재정혁신 노력이 이러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통합부채 관리 차원에서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의 부채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보조금 등 재정사업의 평가와 주요 사업의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등 혁신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물 기자

### 社 告

제3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기간: 2017년 2월 16일(목)~2월 17일(금)

장소: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전주매일신문이 동계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와 유망주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주군스네 스키·스노보드대회'를 무주덕유산 리조트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최: 전주매일신문
- ▲공동주관: 전주매일신문, 전북스키협회
- ▲후원: 전북도, 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
- ▲참가자격: 스키(만 10세 이상), 스노보드(고교생 이상)
- ▲접수기간: 2017년 2월 15일까지
- ▲참가접수: 이메일(jjmaeil1@hanmail.net) 또는 팩스(063-288-9703), 홈페이지(www.jjmaeil.com)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주매일

새만금 국 공유지 100년 임대

## 국내기업에도 '문 활짝'

오늘 입법 예고... 최소 투자규모 10억원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 예고한다.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12월 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 교육기관, 외국의토기관, 첨단 산업, 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한다.

다만, 건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대기업의 경우 300억원)으로 정했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정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인재물 기자

※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9일 엠블호텔 여수(그랜드블룸 II)에서는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윤정현 광주광역시장, 허연옥 울산광역시장, 류순현 경남부지사 등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영·호남 화합과 교류협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13회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를 가졌다.

영·호남 화합과 교류협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13회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가 9일 엠블호텔 여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등 공동대응 정책과제 8건,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2건을 발표, 논의했다.

지역균형 발전과제에는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건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이 포함돼 논의가 이뤄졌다.

새만금 조기 개발과 늘어나는 물동량, 그리고 동시간 인적교류를 위해서는 새만금~전주~김천~포항으로 연결되는 동서 횡단축이 필요하며 따라서 전주~김천 간 철도 구축이 이뤄져

제13회 영 호남 시도지사 회의... 지역균형발전과제 발굴

##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구축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6월 국토부에서 이 구간 철도 건설을 '추가검토대상사업'으로 지정해 이날 회의에서는 이 사업을 '추가검토 대상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무주~대구 고속도로 중 무주~성주 구간 조기 건설을 대통령 공약

사업에 반영되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는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시 영호남 시군구 태권도협회 및 태권도장, 지자체 등에서 단체관람을 요청하는 한편, 각 시도 홈페이지에 '전북투어패스'를 전면적으로 홍보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산업경쟁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에너지산업 육성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과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법, 제도 마련,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 환경오염물질 통합관리제도 관리 권한 지자체 위임, 내수면 양식 활성화 방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확대, 상수도 원수요금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물 기자

### 호 소 문

## 전북 경제의 심장! 현대중공업 전북 군산조선소 멈추지 않아야 한다!

- 500만 전국 전북 출향민과 200만 전북도민이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 ▶ 전북 군산조선소는 전북경제의 심장

현대중공업 전북 군산조선소는 단순한 선박을 만드는 곳이 아닌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난산 끝에 출산한 200만 전북 도민과 군산시민의 자식같은 존재입니다. 2008년 200만 전북도민의 열렬한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문을 연 전북 군산조선소는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이며 전북경제의 상징입니다. (전북수출 9%, 군산수출 19.4%, 군산산업 24%) 즉, 전북 군산조선소 폐쇄는 전북경제의 몰락을 의미하며, 군산조선소와 함께 꿈을 키워 온 도내 조선관련 학과 대학생과 기술계 고등학생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 ▶ 故 정주영 회장의 창업정신이 담긴 전북 군산조선소

전북 군산조선소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아닌 서해안 최초의 최첨단시설을 갖춘 현대중공업 기술집약체로 세계기업사에 소중히 자산이 되고 故 정주영 회장의 불굴의 정신과 영호남 화합의미가 있는 소중한 조선소입니다. 세계기업인 현대중공업은 눈앞의 이익으로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 창업정신을 훼손하는 기업이 아님을 믿습니다.

#### ▶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 전북 군산조선소

정부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의무는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정부의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 26조원의 선박펀드중 일부를 군산조선소에 배정해야 합니다.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퍼분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회사와 지역에 또다시 일감을 주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경쟁력 있는 군산조선소 폐쇄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현대중공업 본사 울산시는 1인당 소득이 2005년 기준 전국 1위의 부유한 도시입니다. 울산에서의 도크 1개 폐쇄는 10개중 하나이지만 군산은 전부인것입니다. 도크폐쇄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것은 정부가 나서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 차원의 군산조선소 수주물량 배정을 철저히 호소드립니다.

#### ▶ 전북 군산조선소 존치는 정치인의 의무

정치인은 불균형을 바로잡아 균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올해는 진행중인 대통령 탄핵여부와 상관없이 대신이 있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북경제 핵심이자 상징인 전북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어느당, 어느 후보이든 대선공약으로 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수도권 300만명을 포함한 500만 전국 전북출향민과 200만 전북도민이 전북 군산조선소 존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10.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 군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 전라북도 · 군산시 · 전라북도의회 · 군산시의회  
군산대학교 총학생회 · 군장대학교 총학생회 · 전주비전대학교 총학생회 ·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직원 일동